

광양 옥곡5일시장 현대화로 소비자 발길 끈다

市, 76억 투입 장육·노점·주차장 조성...도시형 관광시장으로

광양시가 옥곡5일시장을 도시형 관광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62년 개장된 옥곡5일시장은 면 단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면 서 외지인이 많이 찾아 오고 있다.

특히 인근에 기업체 종사자 등이 거주하는 도심지가 위치하고 있어 평소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구매를 원하는 많은 단골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비자들의 욕구 만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76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8586㎡(건축면적 4580㎡) 부지면적에 점포 56개소, 장육 40개소, 노점 117개소, 주차장 85면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는 6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곡5일시장은 초가, 기와, 현대식 건물로 인해 옛 정취와 현대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2년에 광양읍5일시장에 총 사업비 11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환경개선 등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예쁘게 자라렴 보성군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최근 열린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아들이 꽃에 물을 주고 있다. <보성군 제공>

여수·광양항 발전 아이디어 공모

7월4일까지 모든 국민 대상 홈페이지 접수

불편사항 등 7개 분야...최우수상 300만원



함 이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공사의 동반성장 관련 제안 ▲공사의 사회공헌 방안 ▲여수·광양항 또는 공사의 이미지 증진 방안 등이다.

접수는 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사는 제안공모 마감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8편을 선정 한 뒤 7월 말 공개 경진대회를 열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누구나 응모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여수·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대상 분야는 ▲광양항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방안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발전 방안 ▲여수·광양항 신규 투자사업 ▲여수·광양

항 이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공사의 동반성장 관련 제안 ▲공사의 사회공헌 방안 ▲여수·광양항 또는 공사의 이미지 증진 방안 등이다.

접수는 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사는 제안공모 마감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8편을 선정 한 뒤 7월 말 공개 경진대회를 열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누구나 응모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여수·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대상 분야는 ▲광양항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방안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발전 방안 ▲여수·광양항 신규 투자사업 ▲여수·광양



고흥 유자·석류 이슬람 여심 유혹

말레이시아 8만불 수출계약

교두보 삼아 중동 진출 기대

고흥산 유자와 석류가 이슬람권 여심(女心)을 사로잡는다.

고흥군 유자식품클러스터 사업단(대표 임병용)은 최근 말레이시아 MATRADE(대외무역 개발공사) 본사 3층 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투자

회사 REIT사와 8만1000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단과 두원농협, 에덴식품, 흥누리 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 할랄(halal=이슬람 율법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식품 박람회(사진)’에 참가해 유자와 석류를 캔처럼 빵에 발라먹는 시식회와 시음회를 결성 이색 마케팅을 펼쳐 현지 여성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업단은 5월 말까지 할랄식품 인증을 받은 유자·석류 9개 제품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교두보로 삼아 동남 아시아와 중동까지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 농업인 컨설팅 고창군은 최근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식량작물 분야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북도, 축제성 행사 자제 요청

세월호 침몰 애도 차원

전북도가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도내에서 4~5월 개최 예정인 공연 및 축제성 행사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20일 “공연 및 축제성 행사를 해당 시·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인 김제 모악산 축제와 23일 개최 예정인 진안

안 흥삼축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또 도는 24일 전주 소리관에서 열 계획인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 통합 제작발표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도는 행사의 특성상 연기 또는 취소가 어려운 행사는 행사 규모를 축소, 차분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도 행사가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고창동학기념회 영·호남 역사기행 추진

24일 출발...선착순 무료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이사장 이강수)와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는 동학혁명 120주년을 맞아 ‘인내천·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주제로 영·호남 역사기행(1박2일)을 추진한다.

이번 역사기행은 ▲영남 기행단의 호남지역답사(24일~25일) ▲서울·호남 기행단의 영남지역 답사(26~2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

이고,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고창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장수 전해산 묘소 참배→경주 도차→동학강연→판소리 공연→경주 한옥 1박→경주 용담정→대구 수운 회계우 순교지→임실 3·1항쟁 유적지 답사로 구성된다. 영남 방문단 코스는 경주를 출발해 장수 전해산 묘소 참배→동학강연 및 판소리공연→고창 석정온천 1박→선운사 탐방→무장기포 기념식 참석→남원 교통산성→경주 도차순으로 마무리된다. 문의(063-561-1987)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북

‘임실 가동보 비리’...부안으로 불똥튀나

경찰 “5~6명 추가 조사”...강완복 전 군수 연락 두절

‘격포 개선·복구사업 계약 특혜 의혹’ 수사 여부 주목

가동보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안군 격포지구 개선 복구 사업으로 불똥이 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전석중 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가동보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가 80%가량 진행됐다”며 “6·4지방선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브로커와 농어촌공사 직원 등 6명이 가동보 사건과 관련 구속됐으며, 전북경찰은 연루자들을

추가 조사할 방침을 내세웠다.

전북지방경찰청 강윤경 수사과장은 이에 대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동보사건에 관련된, 피의자 5~6명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도내를 비롯해 타지역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동보 뇌물사건”은 충북의 한 정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보 뇌물사건”은 충북의 한 정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보 뇌물사건”은 충북의 한 정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7회 남원 목공예대전 대상 ‘모란문 혼수함’

부천 박만순씨 수상

금상 이진무·류창화씨



‘제17회 남원 목공예대전’ 대상에 박만순(55·부천시 오정구)씨의 ‘모란문 혼수함(사진)’이 선정됐다. 금상에는 이진무(남원)씨의 ‘호’와 류창화(삼척시)씨의 ‘두번째 상상’이 차지했다.

은상은 창작부문에 김명보씨의 ‘주철강화 반판’, 이석환씨의 ‘봉황문 해주반’, 실용부문에 최상건의 ‘꽃칠 과일꽃이&과반’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1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65점이

출품했으며, 수상작은 5월 6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남원시는 목공예의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부터 목공예대전을 열고 있다.

단신

남원시, 정부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선정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최근 선정돼 국비 1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그리지리 벽화봉사단·귀사랑 봉사단·참사랑 봉사단·(사)한생명 등 4개 단체(8개 분야 145명)는 사회봉사 단체와 연계해

금지면 택촌마을과 산내면 등지의 농촌마을을 찾아 컴퓨터 수리와 제빵교육·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능기부 문화가 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진기자 bs8787@

정읍경찰서 ‘녹색 어머니 연합회’ 발대식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최근 경찰서 어울마당에서 ‘2014년 녹색 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을 갖고 정읍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관내 초등학교(9개교) 녹색어머니회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으로 구성된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지난 2006

년부터 9년째 등·하교길 교통지도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혜심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순창군이 최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군은 ▲코레일 관광상품을 연계한 도·농교류 성과 제고 ▲5개 권역에 대한 공동 워크숍 추진 ▲공

동 농·특산물 판매로 연계체계 마련 등 소득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자체적으로 5개 권역 연합체인 ‘농촌마을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해 공동 쇼핑몰과 축제 참여로 권역 간의 상생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화장시설 선정부지 주민 소득사업’ 컨설팅

정읍시는 최근 ‘화장시설 대상지 주민소득사업발굴 컨설팅’을 보고 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감곡면을 대표하는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공모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되는 주민지원기금 100여만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

다.

김 시장은 “비 선호시설인 화장장이 감곡면에 들어서면 만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금지원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